

희망찬 미래를 위해

백영숙 본래의 이상향

2005년도부터 나의 해이다. 지난 첫해병에 깨어나 새삼의 시작을 알리는가 하면
안락으로 안락으로 살고 병역을 알뜰하게 보살핀다. 새해로 희망의 상징이자 (비록의 출발
점이라고 한다. 창립5주년을 기해 지난 5년간의 지기성장을 발판으로 새로운 도약의
날개를 펼쳐서 한국여성재단에게 나의 해가 시작되는 바는 남다른 것 같다. 새해를
바라보고 바라고 있는 새해를 위한 새해를 소리치며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나라를 위해
하루하루 재단의 존재이유가 때문이다.

재단은 지난해엔 창립5주년 행사에서 "새도약! 2010 년들에게 희망찬 미래로!" 이런
가치아래 새해시대 사회예상들을 위한 복지사업지원을 더욱강화하고 한편 사회가 요구하는
각종 사회예상인재를 육성하고 우리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지도력을 발휘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키워내는데 일해 주권국회로 하고 그 후진국이 되어를 '미래포럼'을 출범기
원해 있다.

이 포럼은 여성, 기업, 사회각분야 사회비영리단체 분야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미래세대
를 위하여 연구하고, 실천을 통해 후행하고 공헌하는 신뢰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후진국이 되기 위한 미래는 ① 생명존중 문화확산과 미래세대
주체의 아동존중 ② 청년, 여성, 고령자, 임종자를 위한 창조력, 생산력, 사회참여력 창출
③ 저소득층 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서비스 사회공헌 전개 ④ 후행하고 공헌하는 신뢰사회
구축 ⑤ 평생학습 지식사회 건설을 위한 여가문화사업 전개 ⑥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리더기 여가
리더십 함양 등으로 하고 있다.

포럼회의는 현재 남녀 100여명의 회원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중 50%는 CEO로 그리고 언
론, 시비관계, 학계 지도자로 해서 매우 값있게 하는 미래포럼을 통해 사회적 현안으로 대
응하는 다양한 영역의 문제에 관한 연구 및 대안 제시를 하는 한편 다각도의 교육로 학생의
비트워킹을 주권국회로 하고 있다.

사회법인체로 운영되는 포럼의 임무는 재단이 담당해야 할 포럼의 백로조직으로 매출의 만
분의 일 정도 사회이익의 최선의일을 기원하는 기업으로 구성되는 '반블록'이 포럼과 재단
이 2004년도에 시작한 여성리더십양성 포럼과 같이 필드로 하는 재단을 지원하게 된다.

재단이 2005년도 미래포럼과 함께 하는 것을 계기로 활동의 지평을 넓고 함께 함
다하게 된다. 여성문제에 여성들만이 문제라기 보다는 남녀 사회문제, 경제문제로, 그리고
인간문제에 폭이넓은 문제제기를 하게 된 것이다. 희망찬 미래를 보다 알리게 할수
있는 세상이 세상을 리는 것이다. 재단에게 부러진 미래는 포럼의 연구와 논의의 성과를
어떻게 재단이 리는나인 여성단체들로 하여금 실천에 옮김으로 연구와 논의가 실천으로
해 바꿀게 함께 하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경제와사회는 양극화 현상으로 몸살을 하고 있다. 국제발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응하여 최단시간에 서 있다. 앞에서는 사회통합과 일리리 창출로 새평준화 건설을 통해
사회불안을 해소하고 희망을 광복리개는 목소리를 듣고 있다. 앞자리 창출에서는 우리
저소득층을 만나는 것으로 평등리개는 앞장서고 있는 일리리 박수응이 해안하고 있다.
희망예상을 앞장서는 일에 재단의 몫은 역시 (비영리문화) '리더십양성'을
확장하는 일인것 같다. 기부금을 비롯하여 가진것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고 보루를 같이 보살피고 희망을 가라게 하는것으로 희망찬 미래를 알리
게 함을 기대해 본다.

37

희망찬 을유년을 알차게

0424 1424 5323 2222

박영숙 본재단 이사장

2005년은 닭의 해이다. 닭은 첫새벽에 깨어나 새 날의 시작을 알리는가 하면 암탉은 알을 낳아 품고 병아리를 알뜰하게 보살핀다. 새벽은 희망의 상징이자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한다. 창립 5주년을 기해 지난 5년간의 자기성찰을 발판으로 새로운 도약의 날개를 펴려는 한국여성재단에게 닭의 해가 시사하는 바는 남다른 것 같다. 세상을 바로 읽고 바라고 있는 세상을 위한 새벽을 소리치며 사회적 약자들을 품을 나래를 펴야 하는 것이 재단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재단은 지난해 말, 창립 5주년 행사에서 “재도약! 2010 딸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이란 기치 아래 사각지대 소외 여성들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21세기가 요구하는 각부문의 여성인재를 육성하는 일과 국제사회에서도 당당하게 지도력을 발휘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키워나가는 일에 주력하기로 하고 그 추진력이 되어줄 ‘미래포럼’을 출범시킨바 있다.

이 포럼은 여성, 기업, 사회 각 분야 오피니언리더가 모여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미래세대를 위하여 연구와 논의, 실천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신뢰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과제는 ①생명존중 문화확산과 미래세대 주체인 아동존중, ②청년, 여성, 고령자, 실직자들을 위한 창조적, 생산적, 사회적 일자리 창출, ③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가정친화적 사회운동 전개, ④투명하고 공정한 신뢰사회 구축, ⑤평생학습 지식사회 건설을 위한 연구와 사업 전개, ⑥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21세기 여성 리더십 함양 등으로 하고 있다.

포럼회원은 현재 남녀 100명의 정회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중 50%는 CEO로, 그리고 언론, 시민단체, 학계 지도자로 하며 매월 가지게 되는 정례포럼을 통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는 다양한 영역의 위기에 관한 연구 및 대안 제시를 하는 한편, 다각도의 교류로 상생의 네트워킹을 구현하도록 되어 있다.

사단법인체로 운영되는 포럼의 실무는 재단이 담당하며 포럼의 별도조직으

로 매출의 만분의 일, 또는 세전 이익의 천분의 일을 기부하는 기업으로 구성되는 '만분 클럽'이 포럼과 재단이 2004년도에 시작한 여성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재정을 지원하게 된다.

재단의 2005년은 미래포럼과 함께 하는 것을 계기로 활동의 지평을 넓고 깊게 확대하게 된다. 여성문제를 여성들만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경제문제로, 그리고 인간문제로 풀어나가는 연계고리를 얻게 된 것이다. 희망찬 을유년을 보다 알차게 할 수 있는 씨앗이 싹을 틔운 것이다. 재단에게 부과된 과제는 포럼의 연구와 논의의 성과물을 어떻게 재단의 파트너인 여성단체들로 하여금 실천에 옮김으로 연구와 논의가 말잔치에 머물지 않게 하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 경제와 사회는 양극화 현상으로 몸살을 하고 있다.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 서있다. 일각에서는 사회통합과 일자리 창출로 새 공동체 건설을 통해 사회불안을 해소하고 희망을 창출하자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서는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시간을 나누어주는 일자리 나눔 운동이 제안되고 있다. 희망 세상을 앞당기는 일에 재단의 몫은 역시 '나눔의 문화', '더불어 사는 문화'를 확산하는 일인 듯 하다. 기득권을 비롯한 나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사회 통합을 이뤄내고 모두가 삶의 보람과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희망찬 을유년을 알차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